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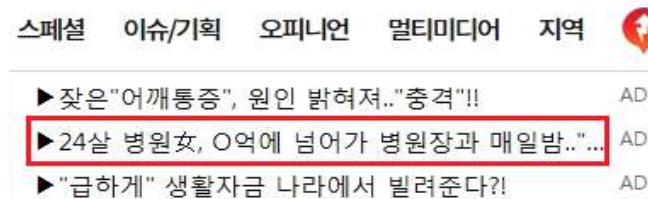
결 정

2018 - 4017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

주 문

한국일보(hankookilbo.com) 2017년 12월 31일자(캡처시각) 「24살 병원女, O
역에 넘어가 병원장과 매일밤…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

<17. 12. 31. 17:23 캡처>

<<http://www.hankookilbo.com/v/7ec486d5a0a64787998c7aaf074f85ad>>

한국일보는 주식정보제공업체를 광고 하면서 「24살 병원女, O역에 넘어가 병
원장과 매일밤…」 이라고 해 마치 병원장과 매일 밤 성매매라도 한 것처럼 선정
적인 제목을 달았다.

하지만 이 광고를 클릭하면 간호조무사가 주식 투자로 40억 원을 벌어서 잘 살고
있다는, 믿거나 말거나 식의 내용이다.

이는 ‘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
안된다’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, ‘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
란,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’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(2)를 위반
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※참고

<<http://admanager.co.kr/web/wsinvest3/html06/?media=bananawt32s-nurse>>

[화제] 간호조무사에서 슈퍼카만 3대!
"주식"으로만 40억대 보유한 그녀의 정체
- 간호조무사 3년차에 찾아온 성공키워드 "주식" 그녀와의 인터뷰 공개

2017-12-31 | 신포털기자 shc79j@imd.co.kr

댓글 (39)

글자크기 + - 음 | | |

모든이들이 부러워하는 여성으로써의 "성공"을 거머쥐고,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들과의 인맥까지 자랑하

2018년 2월 7일

한국신문윤리위원회

위원장	김 용 담	기용담
위원	정 승 호	정승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김 규 식	김규식
	강 희	강희
	하 윤 수	하윤수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